

## 외국인 학생들이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시간을 보내다

### EVA WASNEY

피렌체 **Schlupe**의 해외 시간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30세의 소년이 2월 말에 위니펙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올 여름에 미국을 여행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Schlupe**와 그녀의 남자 친구는 지난달 임대 아파트에 갇혀서 빠르게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했습니다.

“우리는 떠났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유럽이나 캐나다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Schlupe**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위니펙에 효과적으로 갇힌 65명의 **Heartland International English School** 학생들 중 하나입니다.

윌리엄 애비뉴 (**William Avenue**)에 있는 사립 어학원인 하트 랜드 (**Hatland**)는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했지만 창립자이자 게리 게르 바이스 (**Gary Gervais**) 회장은 그의 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Gervais**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 황폐화 될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자가 필요하고, 교실에서 함께 모이는 학생들은 **COVID-19** 전염병에 의해 즉시 파괴되는 모든 상자를 점검합니다.”

**Heartland**는 전 세계에서 한 번에 최대 1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수업과 영어 능력 시험을 실시합니다. 2018년에는 브라질과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니펙에 있는 동안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거나 자신의 숙소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Gervais**는 **Heartland**의 현재 학생들은 모두 격리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관광 측면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Gervais**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 중 일부는 이 문화적, 캐나다 및 위니펙 경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환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박물관, 갤러리 및 영화관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Heartland**는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 아티스트를 고용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위니펙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올라 연주자 **Marie-Elyse Badeau**와의 개인 콘서트였습니다.

**Schlupe**의 경우 학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급우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 사람들을 만나고 금요일 수업 후에 맥주를 먹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실종되어 매우 슬 **sad**합니다.”

**Schlupe**는 현재까지 **COVID-19** 및 900명이 사망한 25,834건이 있는 스위스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가족과 다시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70세 이상이므로 그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9세의 **Olufemi Oshinowo**는 최근 1월 나이지리아에서 위니펙에 온 **Heartland**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1살 된 아들이 여기서 학교를 마치는 동안 도시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 커뮤니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하므로 실제로 가는 유일한 곳은 쇼핑몰입니다."

**Oshinowo**는 월요일 현재 323건의 사망과 10건의 사망이 있는 나이지리아의 친척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함으로써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상당히 낮지만 여전히 뭔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모든 곳이 잠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어디든 갈 수 없습니다."

고립된 생활과 도시의 예측할 수 없는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Oshinowo**는 위니펙에 대한 첫인상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사랑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eva.wasney@freepress.mb.ca](mailto:eva.wasney@freepress.mb.ca)



존 우드 / 위니펙 프리 프레스



**RUTH BONNEVILLE / WINNIPEG FREE PRESS**

왼쪽 : Florence Schlupe은 2월에 남자 친구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위니펙에 왔으며 현재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 최근의 영어 졸업생 Olufemi Oshinowo와 그의 아들 Damisi는 전염병 속에서 위니펙에서 삶에 정착하고 있습니다.